

“신경림 ‘농무’ 문학적 감수성 일깨워”



8 시인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너에게 묻는다’) 장마가 잠시 주춧듯 7월 어느 날, 안도현(52) 시인을 만나러 완주로 향했다. 시인은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전주에서 익산 부근을 가다보면 들관 한 가운데 우뚝 솟은 건물이 보인다. 우석대 본관이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많은 이들이 애송하는 시다. 불현듯 스스로에게 묻는다. 단 한번이라도 누군가를 열렬히, 아무런 대가없이 사랑한 적이 있단가.

안도현 시인은 최근 절필 선언(광주일보 9일자 2면)을 했다. 그는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는 날 교감선생님이 손을 꼭 붙잡고는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날이 87년 6월 29일이었다. 이후 시인은 자연스레 교육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교단이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전교조 활동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해직의 아픔을 겪게 된다. 해직 기간, 시인은 온전히 문학의 길로 자신을 내던진다.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들춰보고 감성의 촉수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시집으로 신경림 시인의 ‘농무’를 꼽는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문정들의 교과서로 사랑을 받을 만큼 서사성과 서정성이 뛰어나다. 그는 “우리는 가난하나 외롭지 않고, 우리는 무력하나 약하지 않다”는 주제의식에 불들었다.

안도현 시인은 고등학교 문예반 시절부터 창비와 문학과 지성을 구해 읽었다. 문학적 감수성이 예민할 때 주옥같은 시들이 스런지처럼 스며들었다. 오규원의 ‘사랑의 기교’, 김종삼의 ‘북치는 소년’도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다. 전자가 언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추구했다면 후자는 순수한 눈으로 세계를 현상화했다.

고교시절부터 창비·문예지 열독

오규원 ‘사랑의 기교’·고은 ‘화살’

사물·삶에 대한 성찰 깊은 울림

쓰지 않는 행위도 현실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시가 지향하는 지점을 알 것도 같다.

그의 연구실은 사방이 온통 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시인에 게선 인식 좋은 서점 아저씨 분위기가 났다. 기자가 처음 안도현 시인의 시를 접한 건 80년 대 중후반 무렵이다. ‘이리중학교’라는, 실제 시인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를 소재로 쓴 시였다.

“어느 때문지 않은 손이 땀아놓았나/ 유리창을 열면/ 군산 선 화물열차가/ 바다에서 돌아오는 곳... 이리중학교에서/ 누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나/ 일주일에 스물네 시간 국정 국어교과서를 가르치는/ 한 달에 스무 시간 보충수업을 하는...”(‘이리중학교’중)

그 시를 발표하고 나서 문단의 호평이 이어졌다. 당시 교육 현장을 실감있게 그렸다는 평이다. 그러나 호사마라라고 할까. 뒤이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다.

“교장실에 불러갔는데, 큰일이 났다는 겁니다. 그 시가 학교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곧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교과부(당시 문교부)에서 시를 쓰게 된 경위서와 다시는 ‘세계의 문학’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죠. 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시를 쓰는 작가가 없잖아 더 단호히 버텼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일주일간 도교육청에 불러갔고, 저와의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

김춘수, 고은, 황동규의 시도 좋아한다. 그들의 시를 읽다보면 보잘 것 없는 사물이나 이야기도 한편의 빛나는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고은의 ‘화살’은 지금도 애송하는 시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 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 몸으로 가자”고 노래했던, 기적이 현실과 맞닿을 때는 시인의 의지가 맘에 들었다.

시집 외에도 안도현은 다양한 인문학 서적을 탐독했다. 예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읽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적 성찰, 인디언의 삶에 대한 이야기하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화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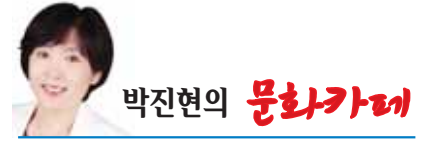
인터뷰 말미에 물었다. “안도현 시인에게 시란 무엇인가.”

“매번 바뀌었다. ‘이전에는 사람이 기발 언덕이거나 따뜻한 곡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위안이나 치유도 좋지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같이 가변 좋겠습디다. 삶의 방법으로 시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시말이에요.”

그는 ‘연탄 한 장’ 같은 시를 꼽고 있다. 시행(詩行)이 일치하는 삶 말이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가까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개는 일/ 눈 내려 세상에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연탄 한 장’ 중에서)

/글=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터

기자가 몸담고 있는 광주일보 편집국은 금남로 2가(무등빌딩 14층)에 위치해 있다.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탁한 공기 때문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랑을 조금 하자면 도심에 자리하고 있긴 하나 누구보다도 자연을 가까이하고 있다. 사무실이 빌딩 고층에 있는 덕분에 창밖으로 눈을 돌리면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무등산을 ‘공짜로’ 즐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옛 전남도청에서 공사중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날마다 ‘변

문화전당의 콘텐츠 계획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커녕 별다른 검증 없이 전시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게다가 아문단은 최근 광주지역 각계인사 105명이 주축이 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콘텐츠 안에 ‘대중적인’ 의견들을 제안한 워크숍에서 생산적인 토론은 고사하고 이 전 원장을 감싸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일보 7월4일자 2면> 아문단에 지역적서는 안중에 없는

광주의 목소리가 들리니?

신해가’ 모습을 가까에서 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문화전당을 볼 때면 설레이기 보다는 걱정부터 앞선다. 2015년 개관까지 2년 정도 남았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난해한 콘텐츠도 그렇고, 전담 운영체를 둘러싼 법인화 논쟁도 그렇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아문단)의 오만과 독선은 광주의 속을 태우는 주범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영철 전 아시아 문화개발원장의 전시에 술감독 위촉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내놓은

것이다.

사실 아문단의 일방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5년 문화전당 설계에서부터 최근의 각종부터 앞선다. 2015년 개관까지 2년 정도 남았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난해한 콘텐츠도 그렇고, 전담 운영체를 둘러싼 법인화 논쟁도 그렇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경쟁의 시대, 콘텐츠도 없고 수익도 못 내는 문화시설은 퇴출 0순위다. 문화전당이 ‘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아문단의 자기반성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광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보여 주길 바란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예약판매

비엔날레재단, 최대 50% 할인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예약판매, 최대 50%까지 할인받자.”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9월6일 개막하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예약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예약입장권은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현장 판매 입장권보다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어른 7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현장 판매 1만원, 6000원, 4000원)에 판매된다.

예약입장권은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천동 금호터미널 매표소, 티켓링크(ticketlink.co.kr)에서 구입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는 광주은행 전국 154개 영업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홈페이지에 예약입장권 구매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문의 062-608-422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그림을 보는데 귀도 즐겁네

갤러리 수하 29일까지 박홍수 교수 초대전

갤러리 수하(광주시 동구 동명동)는 전통 소리의 개념을 화폭에 투영시키는 독창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화가 조선대 박홍수 교수를 초대해 오는 29일까지 ‘의경(意境)-산조(散調)’전을 연다.

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통 소리를 붓의 흐름과 색의 조화로 그려낸 근작 20여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 속에는 전통 소리와 함께 불, 구름, 풀, 꽃 등 자연이 내뿜는 생명의 울림도 붓을 통해 묘사됐다.

정형화되지 않은 붓의 움직임과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한 혼합 기법 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내는 소리로 시각과 청각이 즐거워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조선대 미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박 교수는 의재미술상 특별상, 무등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과 일본 등에서 18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6-848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의경(意境)-산조(散調)’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여행회화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로 구성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박과
대형·인기·중간·고급·초급·필수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알짜배기 고사성어박과 각 8,500원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